

2015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3차(3월 접수분) 심사평

<2015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3차>

대관료 지원사업은 국내 공연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공연 대관료의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 공연은 전문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하며, 공연장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 라이선스 뮤지컬, 동일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연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등은 제외 된다. 또한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단체, 협회,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지원을 받고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심의는 공연단체의 역량(30%), 공연작품의 예술성(5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20%)를 기준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총 100건 이 신청되어 55건이 선정되었다.

금회 대관료 지원사업의 선정비율은 55%로 그 동안의 평균선정비율(지난 1, 2월의 평균 49.3%)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는 단체들이 필수제출 자료나 신청서를 성실히 제출하여 제외단체가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신청 단체 중 지원신청서나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작성이 미흡한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에 예술적 수준이 부족하거나, 단체의 공연을 개인으로 신청한 곳과 공연장과의 공동기획 및 장기공연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관료 지원사업이 민간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대관료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